

농업 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황 의 식 연구 위원
정 호 근 전문 연구원

머 리 말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업의 구조조정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도 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소농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농가의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이 낮아지는 농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여건 하에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농업경영의 조직화이다.

최근 마을단위 영농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을단위 농업경영 조직화는 농업생산을 단지화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농기계 이용을 효율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산간 지역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보다 다양한 지역에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업농 육성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므로 농업경영의 조직화는 구조조정정책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하여주신 관계자 여러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농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결과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에서 농업경영의 조직화를 시도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8.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마을영농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농업경영의 조직화에 의한 효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영농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업농 육성정책이 농업구조의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동시에 영세소농까지 포함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전업농이 모든 농지를 경작할 수 없으므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세소농까지 포함하는 마을 영농조직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가 농업경영의 조직화이다.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을영농 혹은 집락영농 형태의 농가조직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지역, 마을단위가 하나의 생산 주체인 법인이 되어 지역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는 형태로서 지역의 농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통합하여 경영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규모화 효과를 얻고자 한다. 영세소농을 포함한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보다 기업적 경영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 새로운 작부체계와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 통합적 의사결정의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을영농의 주요 활동으로는 농기계 공동소유-공동이용에서부터 최근에는 작물재배 단지화 등 마을 내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것, 농산물 유통가공으로의 확대 등이 있다. 마을영농을 추진하면 농업생산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절감된 노동력으로 다른 노동활용 기회를 획득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생산비의 절감은 농지가 마을 내에서 단지화되어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노동투입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농업경영 조직화의 사례로 영농조합법인 나투어(natur), 순천농협의 직영농장, 영농조합법인 주산사랑을 조사·연구하였다. 나투어는 효과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것으로 거창과 남해에서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거창과 남해의

농장은 다른 지역이어서 생산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을 분리하여 설립할 수밖에 없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한 농장과 같이 통합 운영되고, 판매는 직거래, 항공기 내식 식자재, 백화점 출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투어는 마을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임차료 이외에도 채소농장에 농업취업으로 임금소득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농작업 감소에 따른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채소, 버섯, 벌꿀 등 다른 농업생산 활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 초기에는 마을영농의 사업구조에 대해 농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농가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를 지불함으로써 법인이 단기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모든 농가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단지화가 어려워진다. 판매 능력이 바탕이 안 되면 마을 단위 영농단지를 구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순천의 중산간지역은 고령화로 인하여 농협경제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수도작 중심의 작부체계이어서 농업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지역에도 마을영농형의 새로운 생산체제 및 작부체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농협은 직영농장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이 지역 농가에 어떤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장기임대차에 의해 고정적인 농지임대수입을 제공하고 있다. 농가는 남은 노동력으로 직영농장에 임노동을 하거나 마을내 유희화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을 생산단지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친환경농업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다양한 작부체계를 도입하여 병충해 발생을 축소하고, 제초 등 친환경농업에서의 기계화도 실시할 수 있다. 마을의 농장장 등을 육성함으로써 마을농업 경영을 담당할 후계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반면 직영농장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 직영농장의 손익이 적자인 이유는 농협의 관리비용이 높은 것도 있지만 초기 단지화된 농장의 영농경영 경험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아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작물, 작부체계의 도입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높다. 향후 직영농장의 수익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주산사랑은 60호 회원농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법인이다. 영농조합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퇴비생산하우스, 우렁이 양식장, 미생물배양실, 가공공장(친환경센터) 등의 시설을 가지고 회원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자재를 공급하고, 친환경 쌀을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의 효율화를 위해 법인은 방재, 퇴비 살포 등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농업생산을 단지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친환경농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생산비의 차이를 친환경직불금으로 보완함으로써 농가 투입노력 대비 수익이 더 높아졌다.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화를 실현할 수 있게 생산부문의 통합, 생산방식의 매뉴얼화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계약재배를 통한 전속출하에서 나아가 농기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부체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하나의 생산단지처럼 경영할 수 있는 생산부문의 통합경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의 조직화란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체들이 하나의 농업생산주체처럼 조직된 것이다. 지역, 마을의 노동력, 농지, 자본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농업경영 조직화의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기존의 농기계 등 자원을 유희화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자원 소유자의 기회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업농가와의 관계 설정 등 기존의 농지 임대차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직불금 지원, 농지 임대차 관계 등에서 기존 개별영농과는 다른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조직화의 주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마을영농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지원보다는 전업농가육성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을 단위 농업경영 조직의 출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주체, 거래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이 생산조직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어 농지의 장기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농업경작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해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자금의 지원, 시설설치 등에 대한 지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Strategies for Revitalizing the Systematization of Agricultural Enterpri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effect of systematization among agricultural enterprises, surveying the cases of systematized farming at the village level. Then, we derive a scheme to revitalize village farming through systematization.

To foster full-time specialized farmers has been the one of core measures by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Even so, prime full-time farmers cannot cover all the land to be cultivated, and thus we also need to develop measures that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farming by all types of agricultural enterprises including small poor farms.

The systematization of village farming enables corporate management at the village level through economies of scale based on a management strategy incorporating all the relevant production resources such as land, labor, and capital on a long-term basis. We can also expect to see new ways of land usage, adoption of new production technologies, and business-minded decision making from the systematization.

For our case study, we surveyed the following agricultural enterprises: Natur, an agricultural corporation; a farm under direct management of the Suncheon agricultural cooperative; Jusansarang, an agricultural cooperative firm as well as the farmers who rent out the cultivated land to them.

Researchers: Eui-Sik Hwang, Hogun Chong

E-mail address: eshwa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제2장 농업경영 조직화 유형

1. 농업경영 조직화 유형 6
2. 일본의 마을영농 실태 8

제3장 농업경영 조직화의 사례분석

1. 나투어(Natur) 농장 12
2. 순천농협 직영농장 16
3. 영농조합법인 주산사랑 22
4. 마을농가 실태조사 결과 25

제4장 농업경영 조직화 방향

1. 농업경영 조직화 과제 34
2. 전업농과의 관계정립 37
3. 조직형태 유형 38
4. 정부지원 과제 39

표 차 례

제2장

표 2-1. 일본의 인정농업자 수 추이	9
표 2-2. 일본 마을영농의 성과	10

제3장

표 3-1. 직영농장 계약 현황 (2007년 12월 현재)	16
표 3-2. 품목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19
표 3-3. 순천농협 직영농장 경영손익 추정	21
표 3-4. 지역별 농지규모 및 회원농가	22
표 3-5. 기간별 주요 작업내역	23
표 3-6. 개별 관행농업과 친환경 협업농업의 소득비교	24
표 3-7. 잉여노동력 활용현황	27
표 3-8. 농가소득의 변화	28
표 3-9. 마을 영농단지 참여	29

그 립 차 례

제1장

그림 1-1. 경지규모별 농가의 경지면적 점유 비중	2
------------------------------------	---

제2장

그림 2-1. 농업법인 수 증가추이	7
그림 2-2. 일본의 마을영농조직의 추이	9
그림 2-3. 10a당 생산비 비교	11

제3장

그림 3-1. 나투어 직영농장의 구축과정	13
그림 3-2. 영농조합법인 나투어 사업 관계	14
그림 3-3. 직영농장 단지별 작부체계	17
그림 3-4. 직영농장 전체 작부체계	18
그림 3-5. 마을단위 영농조직에 장기임대를 준 이유	29
그림 3-6. 마을영농조직의 장점	30
그림 3-7. 마을영농조직의 단점	31
그림 3-8. 다른 마을에 대한 추천의향	32

제4장

그림 4-1. 농업경영의 마을 단위 조직화	35
그림 4-2. 농업경영 조직화의 과제	36
그림 4-3. 농업경영 조직화의 비전	36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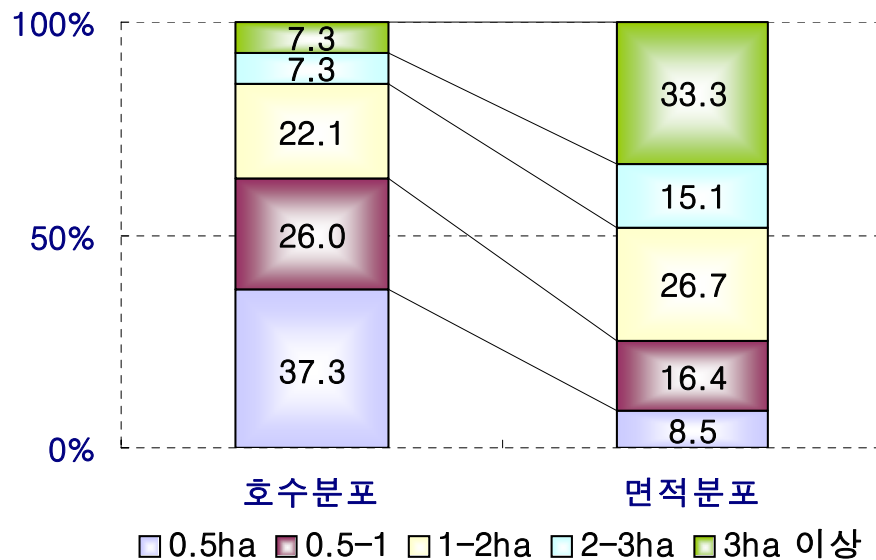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정책이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품목별 전업농 수가 증가하고, 전업농의 생산비중이 확대되는 등 농업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업농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여전히 영세소농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경지규모 3.0ha 이상인 7.3%의 전업농이 33.3%의 경지면적을 경작하고 있지만 2.0ha 이하의 농가도 85.4%나 차지하고, 이들 농가가 경작하는 면적 비중이 51.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중산간 지대에서는 농지분포에 있어 전업화가 근본적으로 어려워 영세소농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2005년에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 농가의 비율이 58.3%로 2000년 51.1%과 비교하여 농업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1-1. 경지규모별 농가의 경지면적 점유 비중, 2005



자료: 농업총조사 자료 분석, 2005.

영세소농의 농업구조 하에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전업농 육성정책이 농업구조의 핵심과제이지만, 동시에 영세소농까지 포함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업농이 모든 농지를 경작할 수 없으므로 전체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세소농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가 농업경영의 조직화이다. 일본에서는 마을영농 혹은 집락영농 형태의 농가조직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 지역, 마을단위가 하나의 생산 주체인 법인이 되어 지역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영농하는 형태이다. 지역의 농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통합하여 경영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규모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세소농을 포함한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이뤄지면 보다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새로운 작부체계의 도입,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인 도입, 통합적 의사결정의 강화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이제까지 농업생산의 조직화라 하면 농산물 출하단계의 산지유통조직에서

출하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즉, 생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출하단계에서 규모화하는 방안이다. 산지유통조직을 법인화하고, 여기에 출하하는 농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조직화 방안이 많이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효율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규모화로 안정적 공급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경영의 조직화는 산지유통 활성화를 촉진한다. 다양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영농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농업경영의 조직화에 의한 효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영농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영농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전업농육성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화농가 또는 영세농가들의 경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업경영체 간의 조직화가 제시되었다. 물론 예전에도 마을에서의 협업영농은 있었으나 전문화 정도, 조직화 주체의 유무, 계약의 철저함 등에서 이와는 차이가 있다. 상업화된 농가들과 법인 또는 조합간의 계열화 내지는 수직통합에 대한 연구나 품목별 생산조직, 수도권 지역에서의 법인경영체를 통한 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다수의 소농을 아우르는 마을단위 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태곤(2007)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영농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된 영세소농들이 위주인 마을에서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영농이 추진되고 있다. 이의 효과로 규모확대, 지역후계자 확보, 생산비 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영 등을 제시하였다.

박광서(1999)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법인경영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 수준과 이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성원들의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점, 법인경영체들이 지역농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 점, 조직의 지도자들이 의욕 있는 젊은 농업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농업법인경영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의 발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용주(2000)는 영농조직의 한 형태로서 작목반 활동의 성격이 지역농업 재편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농협이 작목반 육성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례조사를 통해 찾으려 하였다. 또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이라는 작목반 협동활동의 기본성격이 골격을 갖추어 가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생산자간 협동활동은 대부분 생산과정의 조직화에 의한 생산력 발전보다는 유통과정, 즉 생산물 및 요소시장에 대한 공동대응활동을 통한 가격실현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정호근(2005)은 성공적인 수직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고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수직통합사례(도드람)와 기업이 주도하는 수직통합사례(하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수직통합의 주체와 농가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로 비용절감, 수입안정, 위험분산 등을 제시하였다.

황의식 외(2004:1)는 개별영농의 한계를 지적하고 농가경쟁력 제고와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의 발전전략을 연구하였다. 산지유통주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농가조직화를 제시하고 방안으로 회원제의 차별적 운영, 동질 그룹간의 소그룹화, 공동계산 조직의 정예화 등을 들었다.

황의식 외(2004:2)는 산지유통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농가 조직화를 지적하였다. 농가와 수직적 통합관계가 구축되면 생산이력 등 숨은 정보창출이 용이하고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농가 조직화를 위해서는 농협의 운영원리가 선진국의 시장지향적 협동조합 원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혁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속에서 산지유통혁신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호근 외(2007)는 개별영농, 영세한 지역농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방안으로 규모화, 수익성 제고 및 수익 안정, 사업범위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 그리고 농가조직화를 제시하였다. 조직화된 농가들의 적극적인 경제사업 참여는 개별조합의 공동자회사 성격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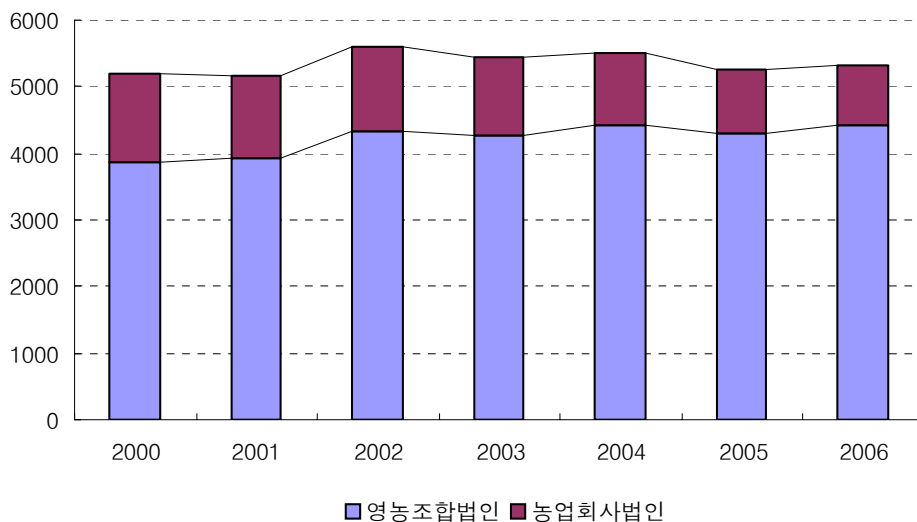
농업경영 조직화 유형

1. 농업경영 조직화 유형

농업경영의 조직화는 일차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업의 법인화를 의미한다. 가족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조직화이기 때문이다. 영세소농구조에서 농업생산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기업적 조직을 도입한 것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조합형태의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금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대표가 농민인 상법상의 법인이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법인은 법인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주로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많이 출현하였다. 2006년 말 현재 5,308개 법인이 있고, 그 중 영농조합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4,410개이다.

결산실적이 있는 법인 수는 2000년에 1,521개에서 2006년에는 2,381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2000년에 1,249개에서 2006년에 2,058개로 증가하였다. 그 중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2000년에 332개에서 2006년에 797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농업법인 수 증가추이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의 사업유형을 보면,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공판매, 유통판매형의 농업법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생산법인은 주로 유리온실, 축산단지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설지원을 받은 시설농업부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업부문 농업법인은 주로 전업농이 중심이 되어 특정 품목에 집중된 단작 중심의 법인화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업농 중심의 법인화이어서 농업생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부문에서 공동출하 등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조직 형태가 많다. 농업법인이 영세소농의 농지까지 포함한 지역 단위의 농업경영을 조직화하는 형태는 아니다. 또한 한 지역 단위의 농업전체를 포함한 농업의 조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마을)단위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단위 경영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법인이 출현하고 있다. 거창·남해의 나투어(Natur)와 순천농협 직영농장이 그 사례이다. 법인이 지역 내 농가로부터 전체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특정품목이 아닌 다양한 품목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체제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농업생산법인이 출현하여 농업생산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출하 단계의 규모화·효율성을 제고하는 산지유통의 조직화만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농업경영의 조직화도 필요하다.

2. 일본의 마을영농 실태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농업을 담당하는 의욕과 능력 있는 개별 경영, 법인경영의 육성·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한 핵심농의 주역은 일정액 이상의 농업소득을 얻는 전업적 경영을 하는 농업주체로서 시정촌이 인정하는 인정농업자이다. 이런 전업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인정농업자 수는 1995년에 약 2만 호(개)에서 2005년에는 19만 호(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정농업자 중 법인은 1995년에 3.7%인 712개이던 것이 2005년에는 4.1%인 7,819개로 증가하였다. 농업법인 중에는 지역 농협(JA)이 출자한 농업생산법인도 119개에 이르고 있다.

인정농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을 담당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한 보완적 대안으로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인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조직으로 마을영농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농가, 겸업농가, 고령 농가를 포함하는 농업경영체를 조직화하여 규모화하고, 지역단위 영농경영을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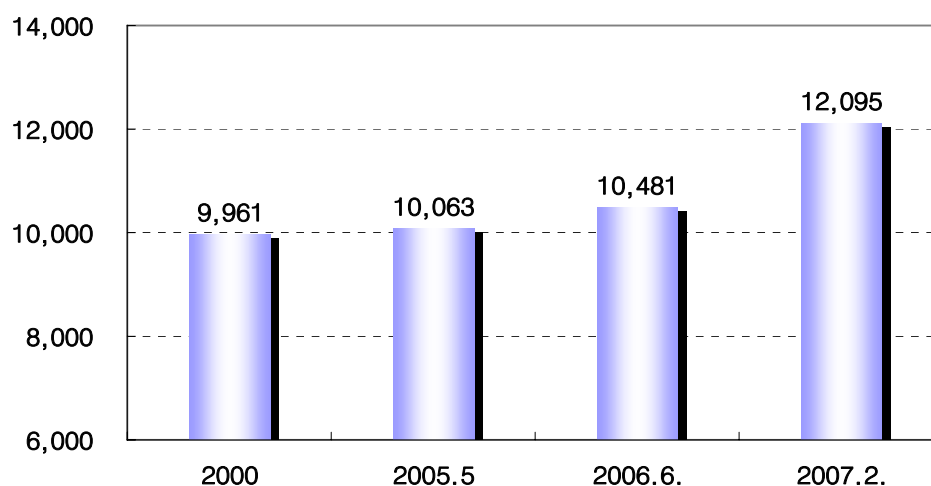
마을영농조직이 경영안정 대책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장래에는 마을영농조직도 인정농업자로 발전하게 되는 농업의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영농조직이 대규모 기업농, 전업농의 육성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2-1. 일본의 인정농업자 수 추이

	인정농업자	그 중 법인	비율	JA출자 농업생산법인
1995	19,193	712	3.7	11
2000	145,057	4,950	3.4	53
2005	191,642	7,819	4.1	119

자료: JA(농협)출자 농업생산법인, 谷口信和, 李倫美.

그림 2-2. 일본의 마을영농조직의 추이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07).

일본 마을영농조직은 최근에 농업생산 효율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림 2-2>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2000년에 9,961개이던 것이 2005년에 10,063개로 증가하고, 2007년에는 12,095개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마을영농조직 중에서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지원 대상으로 신청한 그 자체가 하나의 생산 주체가 되는 마을영농 조직은 2007년에 3,545개이고, 앞으로 신청할 예정인 조직이 2,109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만큼 마을영농조직도 법인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하나의 생산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마을영농조직에 참여한 농가 수는 총 49만호에 이르고, 그 분포를 살펴보면, 10~19호가 참여한 마을영농조직이 23.8%이고, 20~29호 농가가 참여한 경우가 21.7%, 30~39호 농가 14.6%, 40~49호 농가가 참여한 경우가 8.8%, 50호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21.9%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단지화하여 마을 내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마을영농 수가 60.7%이고, 농기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직 수가 49.7%이다. 그리고 마을 내 영농을 일괄관리 운영하는 마을영농조직 수는 3,002개로서 아직은 그 비율이 높지 않다(24.8%).

마을영농의 주요 활동으로는 농기계 공동소유-공동이용에서부터 최근에는 작물재배 단지화 등 마을 내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것, 농산물 유통가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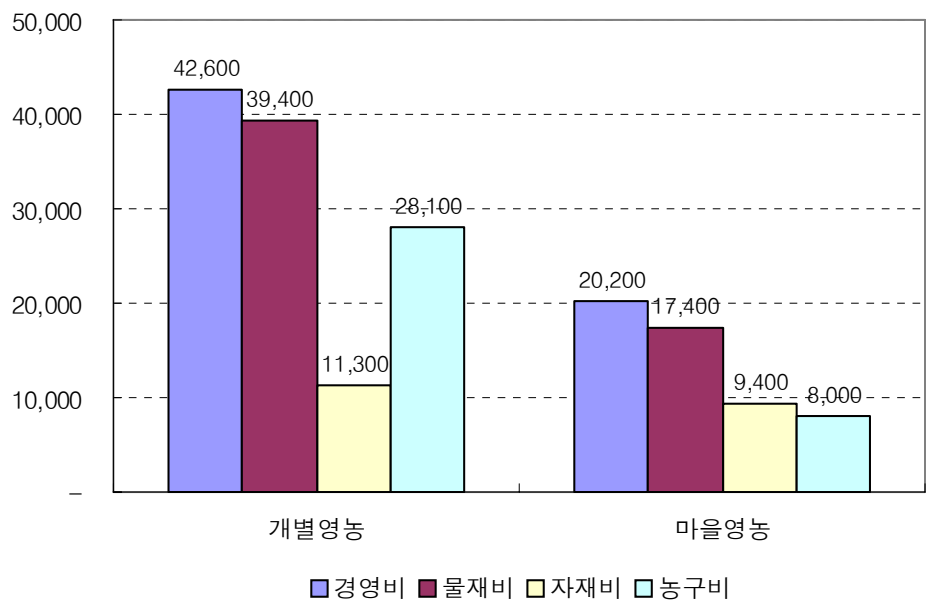
마을영농을 추진한 결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절감된 노동력으로 다른 노동활용 기회를 획득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생산비의 절감이 가능한 이유는 농지가 마을 내에서 단지화되어 농기계 이용의 효율이 높아지고, 노동투입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표 2-2. 일본 마을영농의 성과

구 분		세부적 내용
1차적 성과 (생산성 높은 농업 실현)	생산비용의 절감	쌀 생산비 30% 정도 절감 (대규모 미작지대와 비슷)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시간 30~40% 단축
	합리적 토지이용	단지화, 재배 기술의 평준화 전작답의 단지화
	핵심농의 육성확보	마을영농을 담당할 후계자 육성
2차적 성과	잉여노동력 활용	신규작물 도입 및 농외소득 활동
	마을기능의 활성화	마을의 기능활성화

자료 : 김태곤 외(2007)

그림 2-3. 10a당 생산비 비교



자료: 김태곤 외(2007)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0.8ha(벼 48a, 대두 32a)의 경지면적을 가진 37호(총면적 30ha)가 각각 개별 경영을 한 경우에 있어 마을전체 비용 합계와 농가 전체를 마을영농으로 조직화하여 하나의 생산주체로 운영할 경우의 생산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마을영농으로 조직화하면 생산비는 개별 경영하는 것의 47%로 절감되며, 특히 농기계 비용인 농구비의 절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영농 조직화의 효과는 이러한 생산비 절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단지화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여 시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마을 영농을 담당할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성과가 더 크다. 간접적으로는 신규작물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고, 농외소득 활동이 강화된다.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마을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3 장

농업경영 조직화의 사례분석

1. 나투어(Natur) 농장

나투어(Natur)는 유기농 유통기업인 게비스랜드가 효과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것으로 거창과 남해에 농장을 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외지로부터 단절되어 있어 친환경 농업이 유리한 지역이다. 나투어는 영농조합법인이지만 게비스랜드라는 유통기업이 중심이 되어 농업생산까지 참여하게 된 형태이다. 유통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경우는 많지만 마을단위로 단지화를 추진한 사례는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게비스랜드가 마을단위 생산단지를 구축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가 아닌 단지화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나투어 영농조합은 유통기업과 수직통합 관계에 있는 생산법인으로서, 농가와 장기 임대차 계약으로 단지화한 사례이다. 단지화 이외에도 관내 친환경재배 농가를 전속출하 회원으로 흡수하여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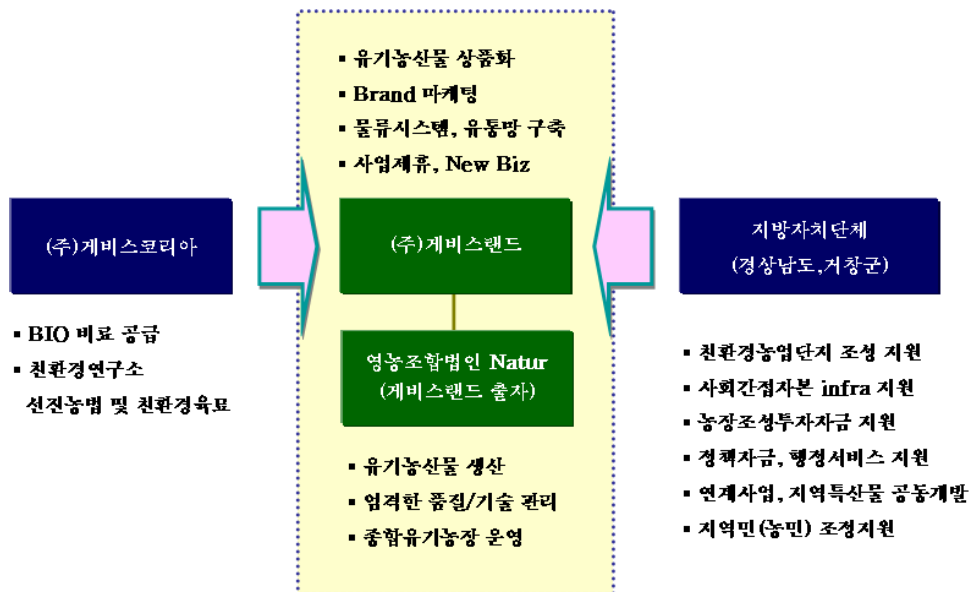
그림 3-1. 나투어 직영농장의 구축과정



나투어의 모회사인 게비스랜드는 효율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전체를 하나의 지구로 선정하여 생산단지화하였고(2003), 농지의 소유와 경작을 위하여 자본금 1억원의 영농조합 형태로 결성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게비스랜드가 5천만 원, 직원이 4천만 원, 농가(10호)가 1천만 원을 출자하여 구성되었다.

거창과 남해 농장은 다른 지역이어서 별도의 생산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을 분리하여 설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한 농장처럼 통합운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나투어는 농산물 생산만 담당하고, 판매는 게비스랜드가 담당하면서 항공기내식의 식자재, 백화점 출하 등으로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3-2>이다.

그림 3-2. 영농조합법인 나투어(Natur) 사업 관계



유통기업이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영농을 하는 형태여서 농가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규모가 적었다. 농가입장에서는 장기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장기 임대차계약으로 신뢰를 확보하였다. 임대차계약은 생산의 안정성을 위해 15년 장기로 하고, 5년마다 임차료를 재결정하며, 임차료는 매년 지불한다. 장기계약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단지 내 모든 농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차료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3.3㎡당 1,350원내지 1,700원을 설정하였다.

거창지역이 26ha, 남해지역이 12ha로 총 38ha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순수한 쌀농업 중심지역으로 고령화와 부재지주가 많은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의 농업구조이었다. 부재지주의 경우 안정적 임차료를 확보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쌀농업에서 시

설원예로 전환하고 있다. 시설하우스는 거창이 3ha, 남해가 4ha이고, 노지채소도 도입하는 등 채소 중심의 작부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쌀 이외에 콩, 쌈채소, 브로콜리, 과채류 등 다품목-소량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채소 중심의 2~3기작 재배가 진행되면서 마을 내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농장에 대해 지역사정이 밝은 이장을 인력담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마을 내 인력 확보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핵심적으로 영농하는 농업인력을 고용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한 인건비로 지역 내에 연간 3억 원 정도가 지불되고 있다. 인건비는 거창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하루에 평균 12명을 고용하고 있고, 남해에서는 1억 6천만 원으로 하루에 평균 14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가가 고령화로 인하여 인력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자의로 탈농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나투어를 통하여 지역마을은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얻고 있다. 우선 토지임차료로 약 1억 6,600만 원(거창 1억 500만 원, 남해 6,1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채소농장에서의 고용으로 약 3억 원의 소득을 얻어 총 4억 6,6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농작업 감소에 따른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채소, 버섯, 벌꿀 등을 통해 다른 농업생산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임대면적에 대해 쌀 농업의 소득률을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총소득 2억 600만 원(10a당 54만 원 적용)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쌀, 마늘의 단순한 작부체계에서 다양한 채소작목이 도입되었고, 친환경경농업지구로 전환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법인 경영으로 젊은 영농경영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 초기에 농가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 지불로 인해 단기적으로 법인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모든 농가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단지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판매 능력이 바탕이 안 되면 마을 단위 영농단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 순천농협 직영농장

순천농협은 APC(산지유통센터) 및 파머스마켓을 도입하여 판매능력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학교급식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원료농산물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농협의 유통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산간지역은 고령화로 농협사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작 중심의 작부체계이어서 농업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마을영농형의 새로운 생산체제 및 작부체계 도입을 위하여 직영농장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였다. 학교급식사업 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순천농협은 중산간 지역의 한 마을을 선정하여 2007년 2월부터 단지내 농지 소유 농가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단지화된 직영농장을 만들었다. 3개 면에 1개 마을씩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134호의 농가에서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43.1ha에 이르는 대규모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형성하였다. 승주단지가 12.2ha, 오성단지가 12.7ha, 송광단지가 18.2ha이다.

표 3-1. 직영농장 계약 현황 (2007년 12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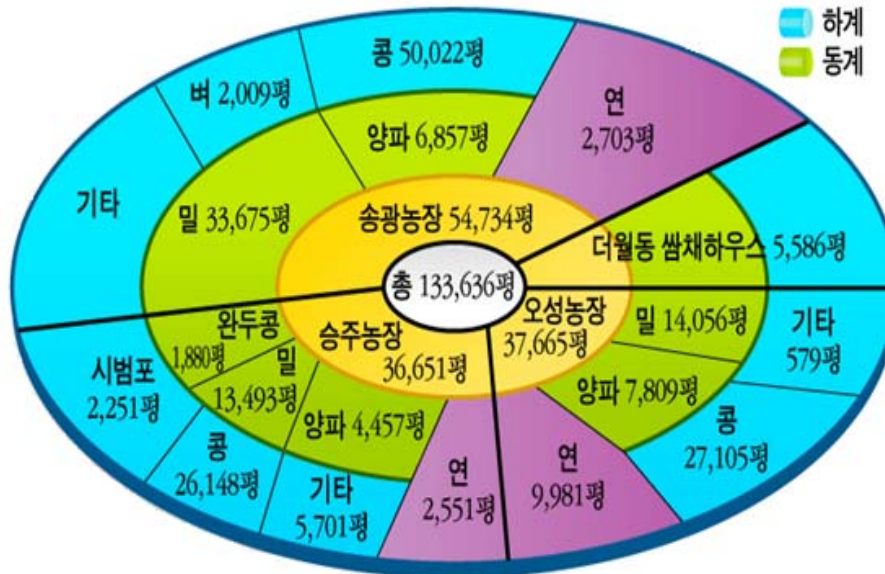
구분	단지명	임대차 내용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1. 쌈채소 하우스 단지	상사	3	3	1.8
2. 노지채소, 잡곡, 특작단지	승주	42	80	12.2
	오성	38	67	12.7
	송광	54	96	18.2
	소계	134	243	43.1
계		137	247	44.9

자료: 순천농협

그림 3-3. 직영농장 단지별 작부체계



그림 3-4. 직영농장 전체 작부체계



마을단위에서 조직화된 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 단위 회의를 실시하고, 농협 각 지점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농가 설득작업을 거쳐 현재의 농지를 확보하였다. 농가와 임대차계약을 3년으로 하고,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차료를 시가보다 높은 3.3㎡당 1,500원(10a 당 45만 원)으로 다른 곳보다 3.3㎡당 500원 정도를 더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단지별로 현지 주민을 현장 농장장으로 고용하여 생산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산간지대로서 고령화된 농가가 대부분이고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수도작에 적합한 토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도작을 하고 있어 미질이 떨어진 지역이다. 마을 단위 농지를 하나의 단지로 선정하고, 친환경농업에 효과적인 농업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쌀 중심의 획일화된 작부체계에서 콩, 연, 양파, 잡곡류, 브로콜리 등 다양한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였다.

직영농장은 단순히 규모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에 다양한 작부체계를 공급하는 시험 재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 브로콜리, 잡곡류 등은 이제까지 지역 내에서 전혀 재배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목이다. 새로운 작물의 도입에 따른 생산위험을 먼저 검토하여 농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농가의 자발적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농협 직영농장은 수도작 단작 위주에서 다품목-소량생산으로 전환된 작부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의 단지화로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지역 농가에게도 단지화하도록 지도하는 지도사업도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연간 6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콩이 1억 7,600만 원, 연이 1억 5,000만 원, 동계작형이 1억 4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생산원가로는 임대료 1억 9,600만 원,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 등 총 7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체단지 43.1ha의 지역에 과거와 같이 쌀만 재배하였을 경우 10a당 조수입 89만 원을 적용하면 총조수입은 3억 8,500만 원이고,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소득은 2억 3,400만 원이었다. 직영농장에 농지를 임대한 농가전체로 보면 새로운 작물의 도입으로 약 2억 2,700만 원 가량의 추가 수입을 얻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2. 품목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단위 : 천 원

매출원가	금 액	매출액	금 액
임대료	195,689	콩	176,000
인건비	185,614	양 파	94,130
종자대	87,538	연	150,400
자재대	129,229	밀, 찰쌀보리	44,872
농기계	85,949	동계작형	104,728
기타	19,123	기 타	41,140
소 계	703,142	소 계	611,270

자료: 순천농협

농협이 직영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가에는 어떤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생산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농가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농가는 장기임대차에 의해 고정적인 농지임대수입을 얻고 있는데 990 m²당 45만 원이다. 이 면적에서 얻은 쌀 소득이 5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임대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해당 농지에서 남은 노동력은 직영농장에 임노동을 하거나 마을내 유희화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새로이 경작하는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부족한 고령농가는 임대료 수입만 얻고 있다.

농가는 임대료 1억 9,569만 원, 인건비 1억 8,561만 원, 농기계 사용료 8,595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총 3억 8,13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 지역 농가전체로 보면 이는 벼농사만을 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농업 총수입 3억 8,445만 원에 근접한 소득이고, 경영세를 제외한 쌀 소득 2억 3,360만 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다. 농가가 직접경영을 하지 않고 단지화한 농장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지역의 농업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또한 생산단지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친환경농업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 다양한 작부체제를 실시함으로써 병충해 발생을 축소하고, 제초 등 친환경농업에서 기계화도 도입할 수 있다. 마을의 농장장 등을 육성함으로써 마을농업 경영을 담당할 후계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규모화된 전업농가의 경우 직접경작의 이익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어 직영농장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농협이 마을 단위 직영농장을 운영하면서 토지임대료만 높이고, 전업농의 임대차에 의한 규모 확대를 저해시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직영농장과 전업농 육성 간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농가에 많은 농업소득을 제공한 것이 농협의 적자유지에서 온 것이라면 이는 농협이 농가에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조직화의 주체인 농협도 장기적으로 직영농장 경영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표 3-3. 순천농협 직영농장 경영손익 추정

단위: 천 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매출액(a)	611,270	판매비와 관리비(d)	136,687
매출원가(b)	703,142	영업손익(e=c-d)	-228,559
매출총이익(c=a-b)	-91,872	영업외 손익(f)	96,216
		당기순손익(g=e+f)	-132,343

농협은 매출액 6억 1,100만 원에서 매출원가 7억 300만 원, 판매관리비로 1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여 영업손실이 1억 2,9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친환경농업 증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얻고 있으며, 직영농장의 경영을 위하여 담당직원 4인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도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투입한 것이어서 적정관리비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관리인건비로 1억 원만 고려하여 보자 그러면 직영농장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1억 3,234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직영농장의 손익이 적자인 것은 농협의 관리비용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초기 단지화된 농장의 영농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아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작물, 작부체계의 도입과정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높다. 향후 직영농장의 수익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협이 적자이지만 농가가 얻는 소득이 3억 8,100만 원이고, 이는 이 면적에서 쌀만을 생산하였을 경우 얻는 농가소득인 2억 3,3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이나 더 많다. 여기에 직영농장의 당기순손실 1억 3,200만 원을 제하였을 경우에 지역 전체로 보면 약 1,6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전체적으로 소득균형은 유지하고 있다. 단지 지역농협의 직영농장손실을 어떻게 줄어나가느냐가 과제이다.

직영농장으로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은 순천농협이 학교급식, 파머스마켓 등 판매사업으로 수직적 계열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직영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는 지역 농

협업의 유통체계를 이용할 수 있어 전업농가보다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직영 농장을 갖추으로써 다각경영이 가능해져 소량-다품목생산으로 개별 농가가 공급하지 못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역 농협(JA)이 출자한 생산법인과 같이 농협이 직영하는 농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높은 농지임대차 비용과 농기계 구입 등 초기비용이 높은 점, 다양한 농가의 이해조정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농협의 직영농장이 전업농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므로 장기적으로 지역농업구조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지도 보급, 시범단지 등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직영농장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영농조합법인 주산사랑

영농조합법인 주산사랑은 60호 회원농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법인이다. 3개 지구의 100ha 정도를 친환경 쌀과 동계작형으로 유채를 재배하고 있다. 생산단지별로 10명의 작업반장을 선정하여 회원농가의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영농조합법인형으로 생산은 개별경영이 주이고, 생산방식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표 3-4. 지역별 농지규모 및 회원농가

단위: 호, ha

지 역	농가수	면 적
돈계지구	40	55
백석지구	10	15
덕림지구	10	30

자료: 주산사랑

표 3-5. 기간별 주요 작업내역

기 간	내 역
1월~2월	친환경농업 교육, 회원농가 점검(참여농가 결정)
2월	퇴비생산, 우렁이 양식시작
3월	퇴비살포, 논갈기
4월~5월	종자발아, 미생물배양시작
5월	모심기, 우렁이 살포
6월~9월	방재(3회)
10월	추수

영농조합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퇴비생산하우스, 우렁이 양식장, 미생물배양실, 가공공장(친환경센터) 등의 시설을 가지고 회원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친환경자재를 공급하고, 생산한 친환경 쌀을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효율화를 위해 조합은 방재, 퇴비 살포 등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주산사랑은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에 벼 매입을 할 수 없어서 농협이 벼매입을 대행하고 있다. 회원농가와 80kg당 16만 5천 원에 계약을 하고, 농협은 회원농가의 친환경쌀을 일반수매가로 수매하고 있다. 이때 농협에 창고사용료, 수매금의 이자 등으로 50원/kg을 지급하고 농협은 회원농가의 친환경쌀을 일반수매가로 수매하고 일정한 가격으로 농가에 지급한다. 계약가격과 농협의 수매가격 차액에 대해서는 3월까지 영농법인이 제반비용(방재, 퇴비 살포비, 친환경자재비 등으로 4만원/1ha)을 제한 후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법인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것은 제한하는 것이다. 1ha당 4만원 정도가 감해지는데 이는 균배양, 퇴비생산, 방재, 퇴비 살포 등의 노력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외부에서 구입 조달한 자재비(소독제, 보르도액, 충제, 균제, 종균) 위주로 산정된 금액이다.

단지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친환경농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생산비에서의 차이를 친환경직불금이 보완함으로써 농가 투입노력 대비 수익이 더 많아졌다. 더불어 방재, 퇴비 살포 등을 법인이 대행함으로써 손쉽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도 얻고 있다.

표 3-6. 개별 관행농업과 친환경 협업농업의 소득비교

단위: 원

항목	개별농가 관행농업	친환경 협업농업
생산량	24가마/1200평	24가마/1200평
가격	120,000원/80kg	165,000원/80kg
조수입	2,888,000	3,960,000
생산비 ¹	3,671,700	3,846,500
순수입	-791,700	113,500

주: 순수입은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제한 금액으로 직불금을 고려하지 않았다.

개별농가의 관행농업인 경우와 주산사랑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협업농업을 비교하면 우선 쌀가격에서 차이가 난다. 비록 친환경농업의 생산비가 조금 더 많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쌀가격이 이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 쌀소득보전 직불, 친환경직불의 직불금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비에 자가노력비와 임차료를 합산한 경우 개별 관행농업은 1200평 농사를 지어 791천 원의 손실을 보는 반면 친환경 협업농업은 113천 원의 순수입을 올린다.

회원 중에 임차농이 많은 것이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된다. 농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경작농가가 바뀌게 되는데 농가가 바뀌는 경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벼를 수확 한 이후 휴식기를 가지거나 보리, 유채를 재배한다. 10월말이나 11월에 심어 5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유채는 좋은 녹비작물의 역할을 하여 2006년 50ha를 심었고, 2007년에는 전 지역에 유채를 심고 있다. 유채를 심으면 지자체 보조를 포함한 경관보전직불로 250만 원/ha를 받는다.² 생산량은 전량 바이오에너지생산회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다. 이러한 유채는 100만 원(3ton/ha)의 생산이 이루어져 비용 100만 원을 제하고 직불금 250만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아 보리를 심는 경우와 비슷한 수익을 올린다. 논에 물을 넣으면 땅에 잘 쉰리고 쉽게 흡수되어 비료절감 효과가 우수하다.

¹ 주산사랑에서 계산한 생산비로 종자비부터 임차료, 자가노력비까지 17가지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였다. 개별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이어서 정확도에 대한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

² 경관보전직불의 단가는 도입 당시 2005년에는 110만 원이었다.

농업경영의 조직화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단지화를 구축하도록 생산부문의 통합, 생산방식의 매뉴얼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재배를 통한 전속 출하에서 나아가 농기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부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하나의 단지처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부문의 통합경영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4. 마을농가 실태조사 결과

4.1. 조사개요

마을단위 농업경영 조직화의 지역 내 효과와 마을의 영농형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경영 마을단위 농가들 간의 조직화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화의 영향, 문제점 파악과 이의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인 경남 거창과 남해의 영농법인 나투어와 순천농협의 마을단위 직영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 마을 또는 인근 몇 개의 마을에서 농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법인 또는 농협이 주체가 되어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조사가 필요하다. 농지를 임대한 농가는 임대료, 노동제공을 통한 임금소득, 잉여노동력을 활용한 새로운 작물재배 등을 통해 소득향상과 소득원의 다변화를 통한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소유농지 중 일부만을 임대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혀 임대하지 않는 농가도 있었다. 농지를 임대하지 않은 농가, 특히 영농규모를 키우려는 전업농가와 경영체 간의 갈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순천농협의 직영농장에 농지를 임대한 농가는 승주, 오성, 송광 지구에서 135

호이고, 나투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한 농가는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에서 70호, 남해 이동면 신전리에서 30호이다. 사례조사 농가는 나투어에서 29명 (남해농장 임대농가 16개, 거창농장 임대농가 13개), 순천농협에서 28명 (송광 6개, 오성 9개, 승주 13개)이다.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69세로 초고령화 상태에 있어 마을영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4.2.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농지 소유규모는 임대 전의 1,700평에서 현재 1,670평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어려움으로 일부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변화를 보면 평균 임대규모는 1,070평이고, 전체 보유농지의 64% 정도를 마을영농단지에 임대하고 있다. 나투어의 경우 평균 임대규모는 687평으로 농가전체 보유농지의 62% 정도를 임대하고 있고 순천의 경우는 평균 임대규모가 1,363평로 나투어보다 약간 많으며 농가전체 보유농지의 57% 정도를 임대하고 있다. 보유 농지를 직영농장에 모두 임대한 경우는 전체의 20명(30%)인데 대부분의 경우 1,000평 미만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평균 농지보유 규모에도 미달하는 농가들이다. 일부 소유농지만을 임대하고 잔여 농지에 임차지를 더해 농업을 경작하는 경우는 모두 6명(9%)인데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자급을 위해 임차영농을 하고 있다. 물론 임대/임차료의 차액만큼 수익증가의 효과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산간지대 등 과거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화 되어가는 농지를 자급 목적으로 자경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그 면적은 극히 적은 규모이었다.

마을영농조직이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여 작부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보았다. 이런 지역은 기후적인 여건의 한계로 남해를 제외한 지역은 마늘 등의 동계작형을 재배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하여 새로운 작물재배 등으로 작부체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기존 채소농

지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정도의 변화에 불과하였다. 일부 순천에서는 여유노동력으로 산간지역 농지에서 매실을 새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농가가 들었고, 남해에서 한우 두 마리를 입식했다는 농가가 하나 있다. 대부분 기존의 벼농사 위주 농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작업의 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임대하였으므로 농가는 그만큼 여유노동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유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변화이다. 주로 여유노동력을 직영농장에서의 임작업을 포함한 농업노동에 활용하고 있다. 여가에 사용한다고 답한 대부분의 농가는 농지를 모두 직영농장에 임대하고 농가주가 연로하여 특별히 노동을 하기보다는 노인회관 등에서 소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령화된 농가의 경우에는 영농에서 은퇴하여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고, 향후 임대차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영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점에서는 순천과 나투어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나투어에서는 새로운 작물재배를 하는 경우가 없는 반면 여가에 사용한다는 경우가 순천에 비해 높았다.

마을영농이 도입됨으로써 농가의 소득은 어느 정도로 변화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대부분 소득이 약간 줄거나 전과 비슷하다고 대답하였다. 순천이 나투어에 비해 약간 줄었다는 답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순천에서 임대면적이 넓어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은 농업조수입의 감소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간 줄었다고 답한 농가에 그 이유를 질문

표 3-7. 잉여노동력 활용현황

단위:%

구분	농업노동	다른 작물재배	취업, 농외활동	여가	합계
전체	74.9	3.5	5.3	16.4	100
나투어	81.1	0	3.9	15.0	100
순천	69.5	5.6	6.9	18	100

* 각자에게 100의 잉여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질문한 결과임

표 3-8. 농가소득의 변화

단위: %

구분	크게 줄었다	약간 줄었다	똑같다	약간 늘었다	크게 늘었다	합 계
전체	8.5	29.8	40.4	19.1	2.1	100
나투어	8.7	17.4	47.8	21.7	4.3	100
순천	7.4	48.1	29.6	14.8	.	100

한 결과 13명이 농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6명이 ‘다른 노동활동 기회가 없어서’ 라고 답하였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대부분 농지임대료를 받는 것 이외에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같은 면적을 두고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 경우와 임대를 주는 경우를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즉, 농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농지임대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고령화되면 은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원인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노동여력이 있으면 다른 농작업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농가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후에 농가소득이 약간 늘었다고 답한 농가에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5명이 ‘직영농장내 임노동 기회가 확대되어’, 3명이 ‘다른 농외활동이 확대되어서’라고 답하였다. 젊은 농가의 경우에는 마을영농조직에 상시 고용되어 있어 농업활동을 더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등이 용이하지 않아 규모 확대에 제약이 있어 농업을 규모화하지 못하였으나 상시 고용되면서 보다 넓은 농지를 경작하는 완전취업(완전고용)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마을 농가들이 마을 영농단지에 어느 정도 참여하여 노임소득을 얻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임소득을 얻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16명으로서 모두 여성이다. 이외에 ‘드물게 노동력을 제공한다’가 9명,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27명이다. 고령화된 농가는 직영농장에 일시적으로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

표 3-9. 마을 영농단지 참여

단위: 명, (%)

구분	농장장 등 책임자로 참여	주기적으로 노동력 제공	아주 드물게 노동력 제공	참여 않음	합 계
전체	2(3.7)	16(29.6)	9(16.7)	27(50.0)	54(100.0)
나투어	1(3.4)	8(27.6)	4(13.8)	16(55.2)	29(100.0)
순천	1(4.0)	8(32.0)	5(20.0)	11(44.0)	25(100.0)

남성의 경우 농장장이 아니면 파종이나 땅갈기(경운) 등의 힘든 일이 많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직접 고용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남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투어와 순천의 답변자 중 상시적으로 직영농장에서 고용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은 8명으로 같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나투어 16명, 순천 11명으로 순천이 적었다.

이와 같이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마을농장으로 조직화하는 것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먼저 ‘임차료를 많이 준다고 하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의 답변이 20명으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이제 나이가 들어 점차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라고 17명이 답하였다. 농업경영의 조직화는 농가의 영농이양을 보다 촉진하고, 고령농가가 쉽게 탈농하도록

그림 3-5. 마을단위 영농조직에 장기임대를 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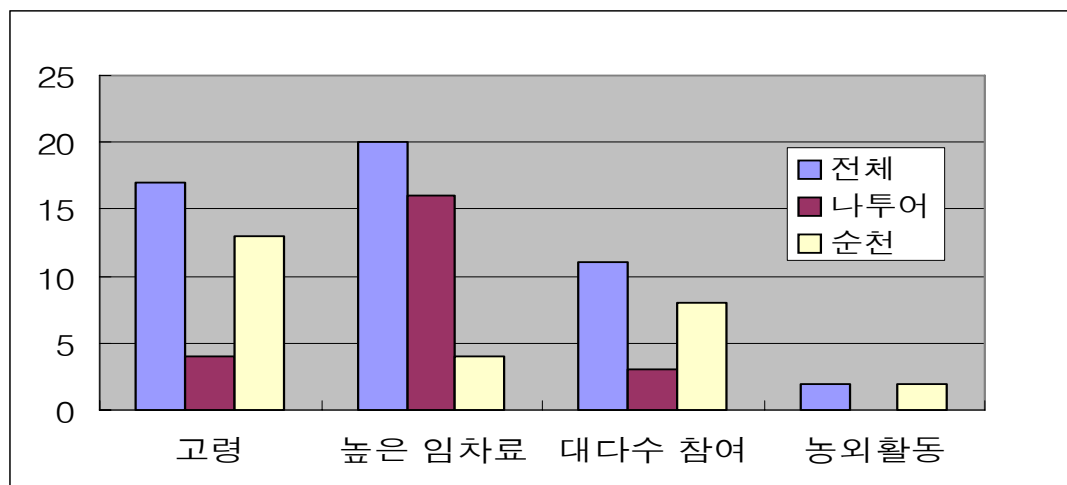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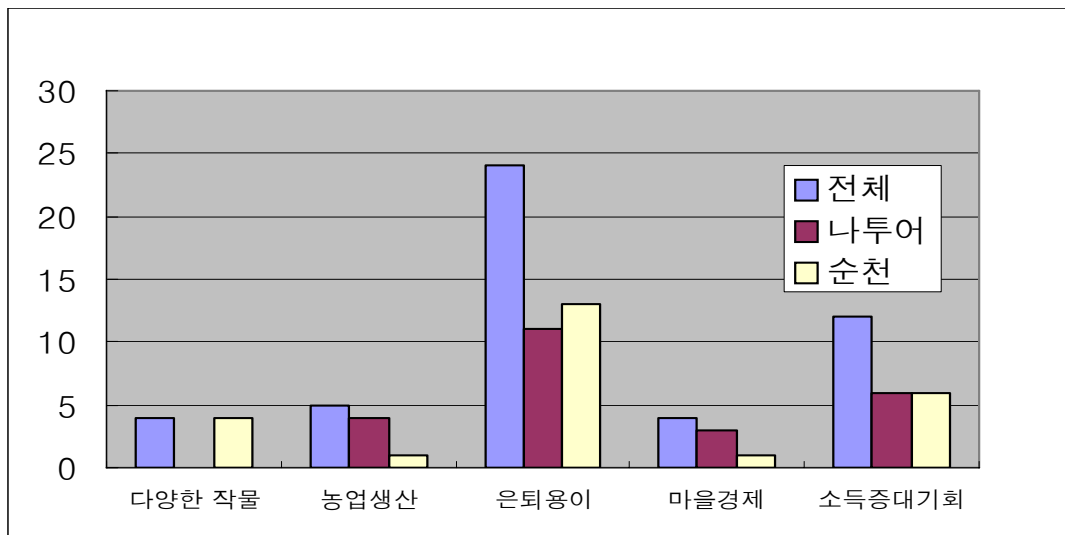


그림 3-6. 마을영농조직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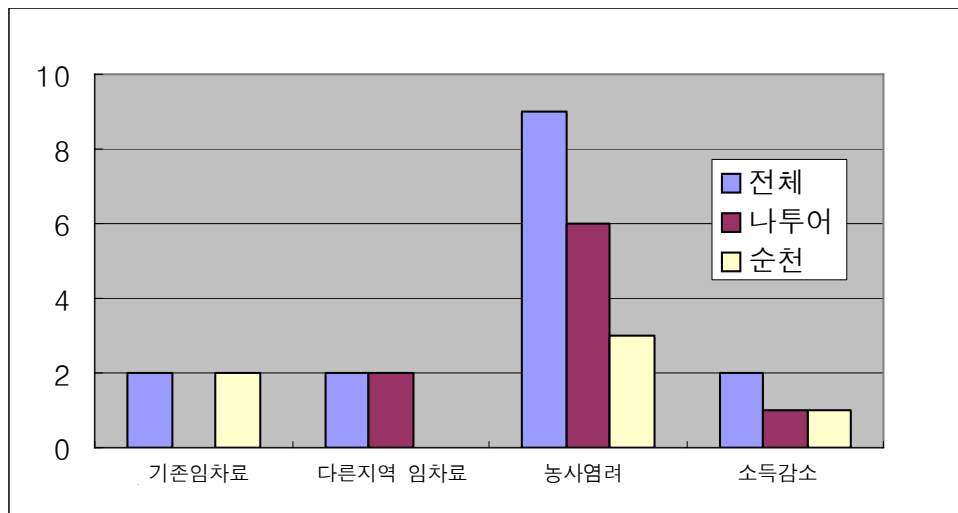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서’ 11명, ‘농업이외에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명이다. 또 다른 이유로 농장예정지에 소유농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꼽기도 하였다. 나투어와 순천을 비교하면 나투어에서는 높은 임차료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에 순천지역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와 같이 마을영농조직으로 전환한 것은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조사하였다. 마을 영농조직의 장점으로 ‘고령농가가 쉽게 영농에서 은퇴할 수 있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24명). 다음으로는 ‘젊은 농가에 더 많은 농업노동기회 제공,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12명이 답하였다. 이외에도 ‘농지가 단지화되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이외의 활동을 더 촉진하여 마을경제를 더 활성화 시킨다’라고 4~5명이 각각 답하였다. 나투어와 순천을 비교할 때 답변의 뚜렷한 차이는 없고, 다만 농업생산의 증가와 마을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이 상대적으로 순천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마을 단지영농으로 인한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단점으로는 9명이 ‘단지화 되었지만 자작농이 아니어서 농사가 잘 안된 것 같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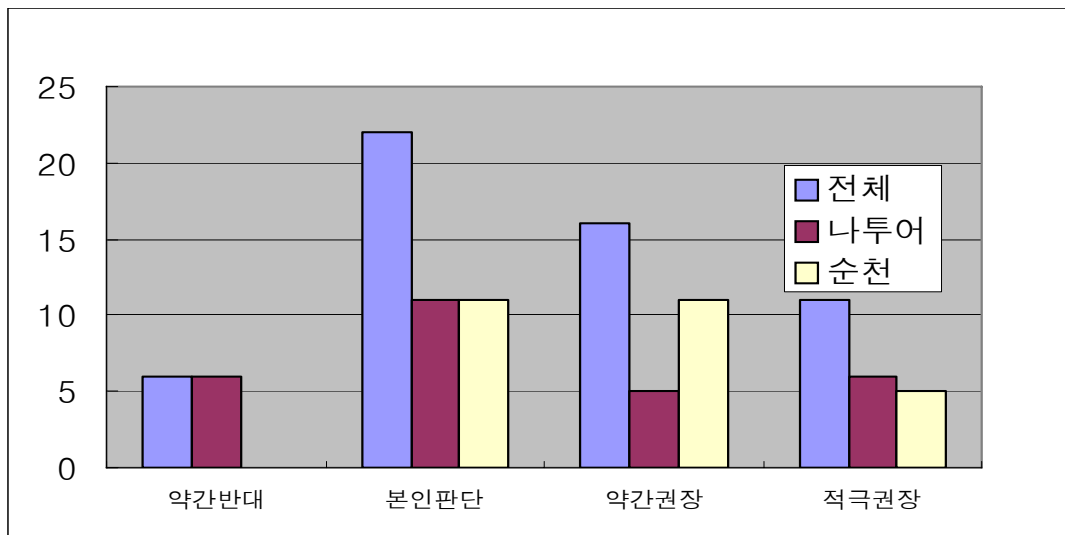
그림 3-7. 마을영농조직의 단점



답하였고, 이외에 ‘임차료만 높여서 기존에 임차하여 짓은 농지를 포기하게 만든다’, ‘다른 지역의 농지 임차료도 덩달아 높아져 농지를 빌리기가 어렵다’, ‘농업이외 할 일이 없어서 농가 소득만 감소시키는 것 같다’고 2명이 각각 답하였다. 이들이 단지화하여 농업생산이 잘 안된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작물의 도입 등으로 재배기술이 안정되지 않아 생산실패의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천에서는 기존 임차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나투어에서는 다른 지역 임차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 이와 같이 마을영농조직화에 참여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권유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장차 마을 단지영농에 참여하려는 마을이 있다면 어떤 권유를 해 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한다’가 가장 많은 22명, ‘약간 권장한다’ 또는 ‘적극 권장한다’가 27명으로 나타났다. 비록 농가소득이 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들었다는 농가가 38%에 달하지만 대상지역 마을이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보다 유리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틈틈이 노동기회까지 제공해주는 단지영농의 장기임대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단지영농에 참여하지 않고 주저하는 몇 농가들을 조사한 결

그림 3-8. 다른 마을에 대한 추천의향



과 특히 순천농협 직영농장의 경우 임대기간(3년) 만료 후 농장존속 여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 특히 단지화로 시설농업이 도입된 경우 해당농지의 형태가 변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던 영농규모를 늘리려는 전업농과 마을영농을 담당하는 경영체 간의 불편한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이 지역이 전업농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고령화된 농가이고 비교적 젊고 의욕적인 전업농가는 몇 안 되는 현실에서 이들과 경영체가 같은 농지를 두고 경합하기에는 아직 마을 단지영농의 농지수요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임차료를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는 나타나고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와 영농법인을 설립한 경우(나투어)와 지역내 협동조합이 조직화를 선도하는 경우(순천농협)의 차이점을 보면 우선 농민의 신뢰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영농법인 경우 농가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애로요인이 많이 작용하여 이것이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주변 농가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 등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

는 농가와 거래관계,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바탕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판로확대 면에서 농협은 농협마트 등 기존의 판매처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은 직접 개척해야 하여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농협은 다른 사업에서 보조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영농장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하는 단점도 있다

마을영농 경영의 조직화에 따라 새로운 작목이 도입되면 그 지역에 작부체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작목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적응되지 못한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영농장을 따라 비닐하우스를 짓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영농장은 주변 농가들에게서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이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투어농장의 경우 친환경농산물판매를 확대하면서 같은 면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를 출하회원 농가로 흡수하고, 농가에 대한 재배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농지를 임대하고 정기적으로 직영농장에서 임금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농지를 임차하여 기존의 영농규모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가소득이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고령으로 고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는 보다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임대료만을 가지고는 소득이 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그래도 관행적인 임대보다는 임대료 수입이 높고 직영농장이 유지되는 한 안정적인 임대차가 보장되어 은퇴도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직영농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어떻게 새로운 임차농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위협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산간지대에서는 농업외 취업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직영농장에서 농업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직영농장이 조방적 농업보다 시설농업을 도입하는 경우에 지역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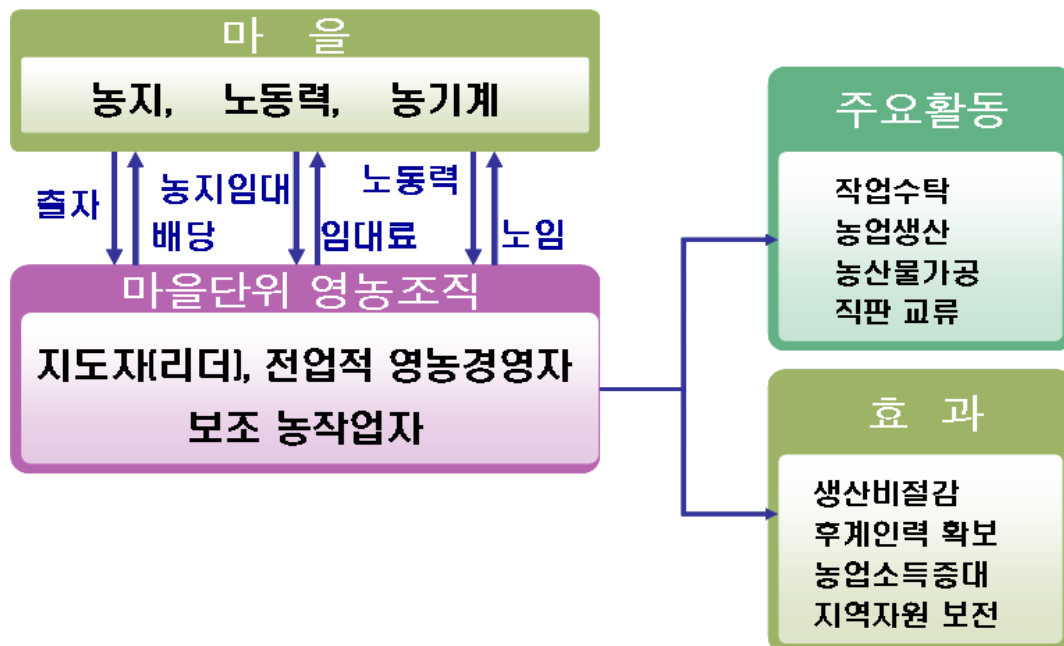
농업경영 조직화 방향

1. 농업경영 조직화 과제

농업발전 전략에서 일차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영세소농을 포함하는 마을 단위, 지역 단위 농업경영의 조직화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와 같이 농업생산의 기업화, 법인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영세소농도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단위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농업경영의 조직화이다.

농업경영의 조직화란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체를 통합해 전체가 하나의 농업생산주체처럼 조직된 것이다. 즉 지역, 마을의 노동력, 농지, 자본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체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농능력이 높은 전업농가 등이 주요 농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조직화는 농업생산품목을 다각화하고,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마을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마을단위 영농조직에 장기임대하고, 농가는 임대소득 및 노임소득 등을 확보하는 관계이다.<그림 4-1>

그림 4-1. 농업경영의 마을 단위 조직화



이러한 농업경영의 조직화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① 농업경영 조직화의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리더가 육성되어야 한다.
- ② 기존의 농기계 등 자원을 유희화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자원 소유자의 기회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전업농가와의 관계설정 등 기존의 농지 임대차 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④ 직불금 지원, 농지 임대차 관계 등에서 기존 개별영농보다 불리한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⑤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조직화의 주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그림 4-2. 농업경영 조직화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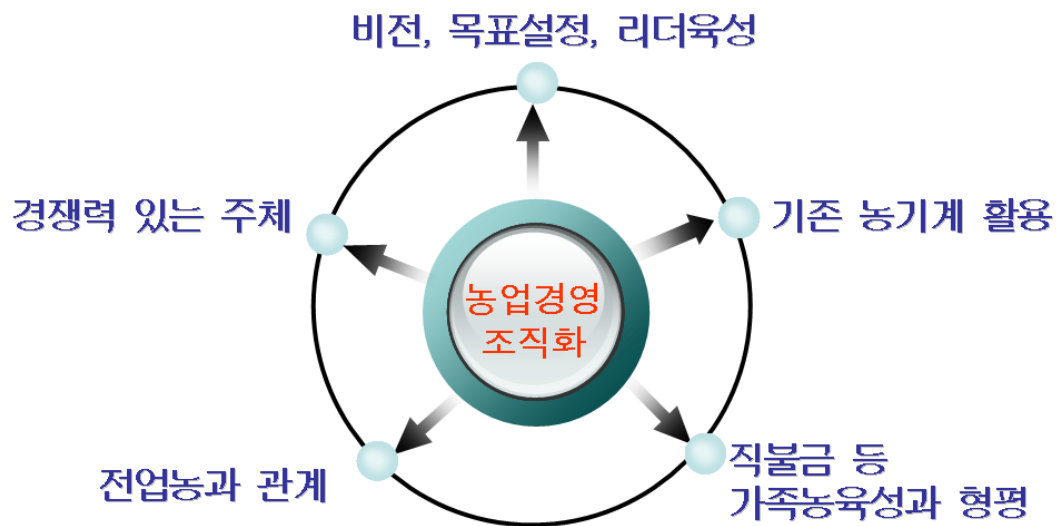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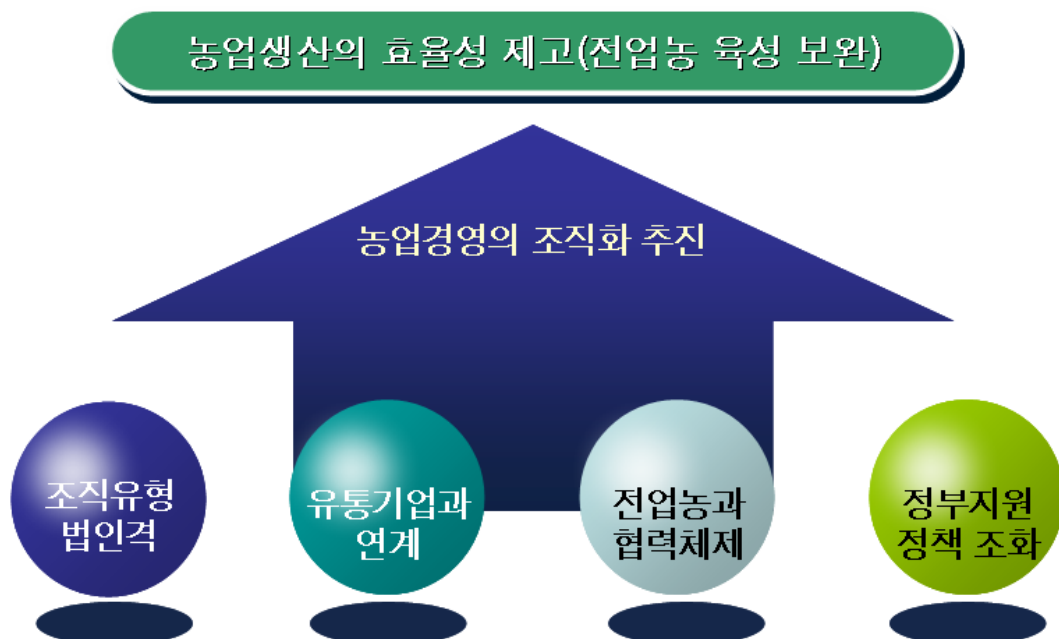


그림 4-3. 농업경영 조직화의 비전



2. 전업농과의 관계정립

마을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농가가 존재하고 있다. 고령농가에서부터 농가를 규모화하여 핵심적으로 영농을 담당하고자 하는 전업농가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런 농가들을 지역의 공동목표하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마을을 ①전업농 위주, ②전업농과 공존하는 관계, ③전업농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구성체 간의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협조, 제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마을 내 사회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농협이든 외부주체인 농가와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이 중요하다.

특히 전업농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젊은 전업농가가 개별적으로 경영확대를 추구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지의 농기계작업을 전담하도록 하거나 농장경영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업농의 위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농지를 단지화하고 이를 전업농에게 장기 임대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농업경영의 조직화는 단순한 농기계공동소유-공동이용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지역의 전농지를 완전통합 경영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외부기업이 중심이 된 조직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 내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지역의 농가가 이 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조정하여 주는 지자체 등 제3자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3. 조직형태 유형

농업경영의 조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조직화를 선도하고 책임지는 주체이다. 핵심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지역농업경영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의 유형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다양하게 설정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 ① 유통가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영농계획을 기업이 수립한다는 면에서 계열화와 다른 형태이다.
- ② 협동조합인 농협이 중심이 되어 관내 마을에 자회사형 생산법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가에 보다 유리하다.
- ③ 마을 단위 농가들이 독립된 법인을 결성하고 여기에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 생산만을 고려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유통 및 판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협동조합이 좋은 형태이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조직화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마을 단위가 하나의 법인으로 발전하는 영농조합형이 더욱 쉽게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농협 등 외부의 유통기업과 연계되었을 때 더 안정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마을영농조직은 자체적으로 유통 기능을 갖추기보다는 외부조직과 협력하고 생산의 효율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협이 지역의 생산법인에 완전 혹은 부분 출자하고, 작부체계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유통사업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의 마을 단위 조직화가 이루어지면 산지유통조직의 출하농가조직화

가 달성되므로 서로 상승작용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 조합원에 대한 농가조직화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4. 정부지원 과제

마을영농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조지원보다는 전업농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농육성보다 불리하면 이러한 조직의 출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 단위 농업경영 조직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주체, 거래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이 생산조직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부서에도 이러한 경제주체의 위상을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농지의 장기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차주인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순천농협 직영농장의 경우 거래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작자이면서도 논농업직 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농협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을영농조직이 5년 내 법인화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업농에 해당하는 인정농업자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마을영농조직은 인정농업자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마을 단위 농업경영 조직이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이므로 아직은 농지소유를 허용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농지 소유규제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농가의 농지 출자를 허용하고, 이익의 분배에서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과 같이 전업농과 동일한 자격으로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이 지원될 경우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산주체로서 위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농기계자금의 지원, 시설설치 등에 대한 지원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참여농가의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교육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주는 것도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문헌

- 김태곤 외(2007), 「농촌의 내발적 지역 활성화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외(2006),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광서 (1999), “농업법인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성장 가능성” 농촌사회 제9집: 249~284
- 박성재 외(2006), 「농가단위 농업소득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호근 (2005), 「농산업 수직통합의 유형별 비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외, (2004),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조직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농업전망 2008(I) 한국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농업전망 발표자료지역아카데미
- 임영선(2007), “협동조합 원칙과 새로운 소유권 제도”, 농협경제연구소, CEO Focus (179)
- 전창곤(2003),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와 발전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역농업네트워크(2004), 「지역연합 조직화 및 사업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 최용주 (2000), “품목별 생산조직 활동의 변화와 지역농협의 과제”, 농촌사회 제10집, 71~102
- 황의식 외 (2004) 1,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조직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외 (2004) 2, 「산지유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정호근 (2006),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esanko, D. et al. (2004), *Economics of Strategy*, 3rd edition, Wiley, NJ.
- Hitt, M., Ireland, R. and Hoskisson R. (2003), *Strategic Management*, 5th edition, Thomson South-Western.
- Jennifer Waner. (2007), “New Generation Cooperatives: Case Study”, Illinois Institute for Rural Affairs.

정책연구보고 P96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2.
발 행 2008. 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